

문제 1

1. 비교부분인 1~2문단은 완벽합니다. 제가 따로 지적할 사항이 없으며, 완벽한 비교이니 이 답안을 기준으로 스스로 다른 비교문제를 풀 때 공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2. 3문단 대응이 좀 아쉽네요, (다)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들어가기 전에 제시문 (다)에 대한 요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시문 (다) 요약 이후 자연스럽게 (가), (나) 대응이 이루어 집니다.
3. 또한, 제시문 (다)는 두가지 논리로 쓰여집니다. '원근단축', '변칙'의 두 요소로요. 하지만 (나)에서는 2가지 대응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가)를 통해선 원근 단축 대응만 있을 뿐 변칙 대응이 없네요. 완벽하지 못한 답안으로 대칭성 또한 떨어지네요.

문제 2

1. “최초로 보여줄 때의 사진이 선명할수록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에 따른, 공개 시간이 122초일 때와 13초 일 때의 차이를 각각 비교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희미한 정도가 상인 경우 5.9, 중인 경우 11.6, 하인 경우 30.2로 '하'일 때 가장 높다. 이는 곧 오래 보여줄수록 정확히 인지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율적이다.”

이 논리가 이해되지 않네요, 희미한 정도가 상에서 하로 변하면 당연히 인식률은 높아지고, 시간 변수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오래 보여주면 인지된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미 있는 결론이 되죠? 시간오래 보여주면 결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건데요.

2. 3문단은 이 점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채용과정을 설계 하셨는데, 1번지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 해석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셨으므로 오답이 됩니다.

표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니 표에 대한 결론에 대한 사고를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랄게요 :)